



지난 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법인 조인원 이사장과 각 구성원 대표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위해 법인은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인은 구성원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김지원 기자 kiw990327@khu.ac.kr

지난 5일 법인 이사회 조인원 이사장과 구성원이 올해 처음으로 마주해 총장 선출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조 이사장은 이날 ‘법인은 이번 구성원 갈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총장 선임 여부는 구성원 간 합의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인-구성원 간담회의 주된 화두는 ‘현 구성원 갈등과 총장 선출제에 대한 법인의 입장’이었다. 조 이사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구성원 대표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조 이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위해 법인은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구성원 합의 사항을 대학 본부를 통해 전달받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속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이사회 이전까지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조 이사장이 ‘대학평의원

회(대평의) 총장선출규정(선출규정) 논란 해소를 위해선 법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구성원들의 주장에 대한 대답으로, 관련된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달 22일 긴급회의를 통해 ‘총장 선출제는 대평의가 아니라 범대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이와 관련한 법인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사장 면담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수의회 또한 지난달 20일 “법인이 2019학년도 1학기 중에 총장 선거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인의 적극적인 태도를 종용한 바 있다.

총장 선출제 마련 과정에 왜 대학 본부가 나서냐는 일부 구성원들의 의문도 제기됐다. 조 이사장은 “올해 구성원 단체 대표들이 임기 교체되었고, 해당 대표들의 의견 또한 참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은 이러한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 일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법인은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구성원 합의 사항은 대학본부를 통해 전달 받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은 “법인이 민주적인 총장 선출제 마련에 동의했음에도 자꾸만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구성원들끼리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 책임을 가진 법인이 이전과 같이 총장을 선임하도록 발미를 주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과 대학본부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기다리며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안을 제시해 구성원 합의를 종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의 적극적인 태도가 구성원 합의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 그리고 이사회 의결 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법인은 나서지 않겠다

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고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 세대와 그 미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수의회 강제식 의장은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학본부에 대한 법인의 업무 위임은 대평의 선출규정 제출 이후 교수의회가 줄곧 법인과 대학본부에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 바와 궤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법인이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에 미루어, 총장 선임 여부는 오직 구성원들의 의견 조율에 달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빠른 시일 내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며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과 아울러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총장상에 대한 고민 등을 통해 논의를 성숙하게 가꿔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강사법’ 8월부터 본격 적용 우리학교 “원칙대로 시행”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열악했던 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학교 교무팀은 “강사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령과 매뉴얼에 맞춰 개편 및 검토 중에 있다”며 “특정한 기준을 세워 강사를 임용하거나 강의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가 마주한 문제를 비춰 봤을 때 강사법이 취지대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우리학교는 시간강사를 대체하기 위한 전임, 겸임·초빙교수의 인원 및 시수 증가를 배제한 상태다. 겸임·초빙교수는 재임용 절차와 방학 중 임금, 교원 소청권 등을 보장하지 않아도 돼 대학 측이 부담이 될 기 위해 선택하는 방안이다. 교무팀은 “타 대학에서는 강사법 대응을 위해 겸임·초빙 교수로 대체한다고 하던데 우리학교는 정석대로 진행한다”며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임금 288억원을 오는 10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정예원 사무관은 “강사 고용변동 및 비종 등을 반영하여 방학 중 임금을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며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대학 입장에서 부담 정도가 달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교육부의 지원금 288억 원이 재정적인 부담을 완하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학교 강사법 대책위원회 정복철(후마니타스칼리지) 위원장은 “전국에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288억 원을 나눠 1년에 1억에서 2억 원의 지

원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 완화 지원’이 강사법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 강사가 맡고 있는 강의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 강사법에 따라 시간강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권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2011년에서 2018년 동안 시간강사 수가 총 23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강사 18.7%p가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풀아 왔던 우리학교 강사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학교 강사 강의료는 약 51,000원으로 7년 이상 동결된 상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는 “전임교원의 연봉은 매년 인상하면서 교수급 이하층의 시간강사를 강사료는 10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라며 “심지어 강사료는 사립대 평균치도 못 따라가는 곳이 경희대”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아무래도 등록금과 강사료가 연계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며 “12년째 등록금이 동결되었는데 입학금 등 수입이 위축되어서 강사료 인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확실한 공개채용 및 재임용 기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우리학교는 지금껏 강의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학기 위촉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재임용 절차 부문에 따르면 “재임용 심사에서 강의평가만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혀 있다. 이에 교무팀은 “임용계약 내용 및 재임용 기준에 대해 감사행정원과 논의 중이며 확정을 못 내린 상태”라며 “강사에 대한 규정 제정에 의견을 모아 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국제캠 마일리지 장학 신설 … 최대 200만원까지 수혜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국제】마일리지 장학이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 대상으로 이달 내 시행될 계획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운영 중인 적립식 장학 제도 ‘모자이크 장학’과 유사한 형태다. 올해 3월 이후 취득한 실적부터 인정되며,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학생 개인 계좌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 장학은 자격증, 어학능력 및 대내·외 활동 내역을 점수로 환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학 중 2번 신청 가능하며,

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적립은 재학 및 휴학 기간에 모두 가능하다. 정규학기 재학생 중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마일리지 환산기준은 1점당 1원이다. 따라서 10만 점부터 200만 점까지 적립된 점수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립 방법은 증빙서류를 학생지원센터 장학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학팀에서 해당 실적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통해 마일리지 가 축적된다. 다만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교내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수상 등의 개인 특성 고려사항은 소속 단과대학이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국제캠 학생지원센터 장학팀은 “적립식인 마일리지 장학은 서울캠 모자이크 장학과 유사하지만 포인트 기준이 더 높고 휴학생도 적립 가능하다”며 “마일리지 장학제도로 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며 동시에 장학금 획득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서울캠만 모자이크 장학을 운영해 국제캠 학생은 적립식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캠퍼스별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장

학 제도를 각각 자율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은 “우리학교는 서울캠에 인문사회계열, 국제캠에 이공계열이 밀집돼 있다”며 “서로 특성이 상이해 우정 장학 등의 공통 장학을 제외하고는 캠퍼스별로 장학 제도를 자율 운영한다”고 전했다.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마일리지 장학은 서울캠 모자이크 장학에 대응하는 학생 중심 장학제도”라며 “학우분들께서 취업이나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의욕과 보상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지면안내

총학생회 공약 중간점검 >> 4면



〈경희대로〉



〈이름〉

※ 이번 호가 1학기 중간호입니다



시선

사설

간판 본 간담회  
이제 무슨 핑계를 댈 건가

반복된 논의가 새 국면을 맞는 듯했다. 교수의회와 교수의회를 제외한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 구성원들은 모두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 선출규정(선출규정)’ 논의 종결을 위해 법인의 개입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지만 양측은 같은 것을 요구했다. 법인이 개입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말이다. 마침내 지난 5일 법인 이사회 조인원 이사장과 구성원들이 마주 앉았다. 조인원 이사장의 한마디에 한 학기 내내 지루하게 이어지던 관련 논의의 행방이 기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인원 이사장은 ‘법인은 이번 구성원 갈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구성원들이 법인으로 책임의 화살을 돌리던 것을 다시 구성원들에게 되돌린 셈이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간담회 동안, 법인은 구성원 이견 조율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다른 수사로 여러 번 반복했다.

법인의 이러한 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다. 총장 선출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당위와 큰 목표를 두고 시작한 논의였다. 이제 와 법인이 합일되지 않은 구성원 일부의 의견에 힘을 싣는다면, 당장의 논란이야 종결되었지만 당초 논의를 시작한 이유부터 흐리는 것이다.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고려해 구성원 간 갈등에 철저히 선을 그은 법인의 태도는 납득할 수 있는 조치다.

이제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대평의 선출 규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당사자인 교수의회와 범대위다. 그러나 이어진 논의에 지친 나머지 간담회 이후 양 쪽에서는 구성원끼리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전망하기에 이르렀다.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법인의 방관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책임의 창끝을 돌렸다. 그러나 법인의 선긋기로 더욱 선명해진 건 결국 구성원 간 합의가 구성원 집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구성원의 타협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교수의회는 범대위가 이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포용의 노력을 보여야한다. 교수의회를 제외한 범대위 구성원들은 교수의회가 범대위를 부정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제안해 그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 이상의 책임 돌리기보다 이제는 자성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 끝내야한다. 공개 토론회라든가 개최해 각자 고민한 내용들을 풀어내자. 교수의회와 범대위가 동수로 모이는 등 조건을 동일시하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 이야기할 것을 제안한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는 의견을 도출할 방법에 대해 양 측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를 시작할 때 한 학기를 이어 온 평행선 갈등은 조금씩 그 간극이 좁혀질 수 있다.

그 누구의 일도 아니다. 구성원의 열망으로 시작했고 구성원의 의지로 끝내야 할 일이다. 총장 선출제는 결국 구성원의 원만한 합의에서 비로소 논의가 시작됨을 명심해야한다.

대학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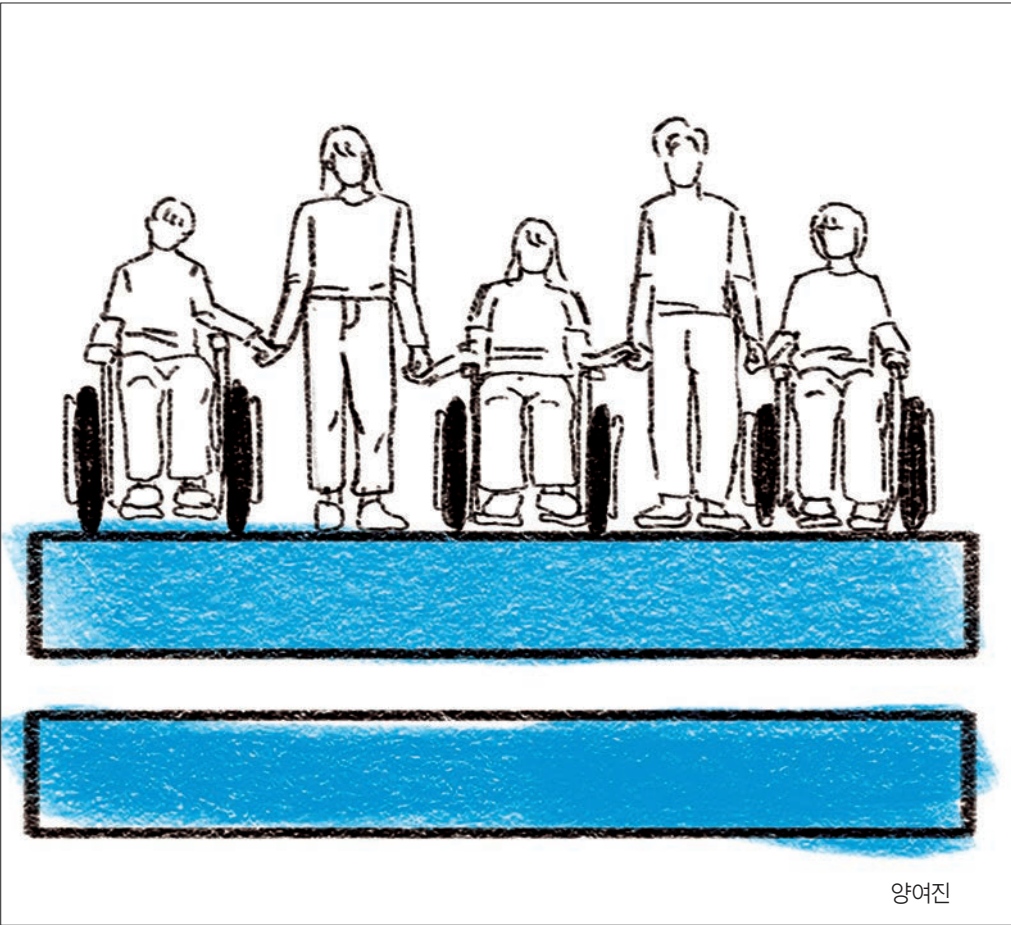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꼼작없이 다음 학기로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특위)’와 인문대 학생회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어서문학과 A교수 관련 피해 은폐 및 A교수 비호 시도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A특위, **“일부 교수진이 사건 축소 시도한 정황 드러나”/대학신문, 2019.5.26.**) 이들은 일부 교수가 A교수의 인권센터 변론서 작성을 돕고 피해자 측에 진술서 내용을 수정,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피해 교수를 찾아가 A교수를 용서할 것을 요구하며 밤새 압박을 가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는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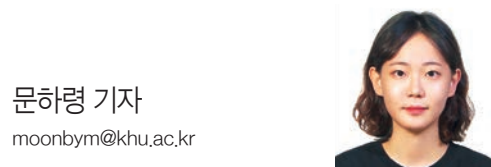
지난 4월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는 이유로 여학우

만평



이 주의 주제 - 장애학생 이동권

당사자 목소리 생략된 장애인 시설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지난 2017년 우리학교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학내에서 장애학생의 학습에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시설이 미비한 공간도 쉽게 발견된다는 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장애인 시설로 마련된 학내 경사로는 정작 장애학생이 이용하기엔 부적절했다. 또 비장애학생에게 ‘인도’로 여겨지는 길은 장애학생에선 ‘인도’가 될 수 없었다. 학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경사로를 마련했다지만 정작 경사가 너무 가팔라 장애학생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우리대학은 장애학생의 생활보다 명목상 이유에 더 집중했는지도 모른다.

지난 2월 부산에서는 장애인 모자(母子)가 차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택시에 부딪혀 어머니가 숨지고 아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현장 바로 옆에 인도가 있었지만 인도 환경이 열악해 모자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처럼 장애학생의 재량에 맡겨진 장애학생의

이동권은 학습권뿐만 아니라 생존권으로 이어진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휠체어의 자체 무게와 속도로 인해 사고 발생시 보행자보다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 부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 또 이로 인한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장애학생만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 누구도, 학생을 대변하는 학생 자치 기구조차 장애학생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따르면 우리학교에 약 500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 단과대학 재학생 수를 육박하는 장애 학생은 누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현재 학내에 장애학생을 위한 자치 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장애인은 쉽게 잊혀지고, 어렵게 존중받는다.

물론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편의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은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비장애학생에게 원하지 않게 동정의 대상이 되기 일쑤지만, 그들과 동등하게 학교의 주체로 여겨져야만 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사업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생략된 채 진행된다는 것은 장애학생에게 모욕적인 처사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장애인 시설은 특정한 대상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당장 내일 당신의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특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모두를 위한 움직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게 접근, 강제 성추행을 시도하려 한 건국대 홍보실 조교가 경찰에 입건됐다.(**홍보실 A조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입건/건대신문, 2019.5.17.**)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수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건국대 홍보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강대 총학생회(총학)가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학생회비 납부 저조, 고뇌하는 학생회/서강학보, 2019.5.25.**) 총학 복학기 중순 위 결산안에 따르면 학생회비 납부율은 약 46.7%로, 64,090,435원이 납부됐다. 국제인문학부 김가운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비를 사용해 수익사업을 진행하되, 학생회비 납부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앙대 서울캠 총학 성평등위원회(성평위)가 2번째 간담회를 열었다.(**중성조 간담회, 뚜렷한 방향 못 잡아/중대신문, 2019.6.4.**) 간담회는 ‘학생자치 차원에서 성평등한 중앙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장비단 위원장은 “앞

으로도 소수자 및 젠더권력에 의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자 한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화여대 여성학과와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여성학과 전임교원 부족 문제 심각, 절반 퇴임했지만 총원 없어/이대학보, 2019.6.3.**) 이화여대 여성학과는 지난 3년 동안 교수 3명이 퇴임했지만 추가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기에 전임교원 부족 문제가 더욱 지적된다. 여성학과 교수진이 대학원과 학부 연계 전공 강의 외에도 행정, 한국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학센터 등을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연세대에서 ‘글로벌기초교육학부(GBED) 문제 해결을 위한 총학생회-GBED 간담회’가 열렸다.(**GBED 등록금 인상분 반환 결정… 남은 숙제는?/연세춘추, 2019.5.27**) 연세대는 올해 입학한 GBED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전 공지없이 인상한 사태에 대해 등록금 인상분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지난달 20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GBED 학생들은 해결된 등록금 문제 이외에도 학생들 간 교류 부족, 불합리한 학사제도, 외국어 공지 및 안내 미흡 등을 주된 문제로 지적했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해야

세시봉

이서림 <국제뉴스팀장>



※ 영화 <기생충>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국내 개봉 전부터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이목을 끌었고 개봉 8일 만에 약 5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다. 관람객 대부분은 극장을 나오면서 찹찹하고 복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 그간 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인간 군상을 비참하게 그려냈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비참한 스토리가 곧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화는 사회의 비극적인 이면을 직시하고 있다. 비오는 날에 부자집은 미제 텐트 안에서 잠이 들지만 가난한 반지하는 물에 잠겨 초토화된다. 누군가에게는 기분을 전환시킬만한 즐거운 일이 다른 이에게는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사건으로 다가온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 순위는 20위 안에 오르고,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음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했다는 비보가 줄을 잇는다.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어야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벼랑 끝에 밀릴 동안 세상은 약자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약자는 소리 없이 아우성친다. 세상과 격리된 지하에서 신호를 쏘아 보내지만 외면뿐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부른다. 언뜻 지하는 지상과 철저히 구분돼 다른 세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는 겉게 뚫린 지하실 계단으로 이어져 있으며 약자의 죽음은 모두의 책임이다.

힘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차별이나 멸시와는 엄연히 다르다. 아직도 자본이나 사회적 위치를 권력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신분의 제약은 사라졌지만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계급은 되풀이된다. 사실 자본가와 노동자, 대표자와 부하직원, 정치인과 국민은 공생하는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로 여겨지는 자는 종종 약자를 타자로 간주하며 멸시하곤 한다.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인간이지만 환경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혐오하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기사남 념새’로 형상화된다.

영화를 본 뒤 약자를 상징하는 지하실의 남자 얼굴을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 열악한 삶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범벅 된 얼굴이 강렬하고 두려웠다.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이 있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약자의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 약자의 얼굴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인식은 변화의 시작이다.

지하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얼굴을 들여다 본 적이 있는가. 호소하는 아픔에 관심 가진 적이 있는가. 차이가 멸시와 배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가. 타자의 아픔을 두려워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질문을 던질 때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 ‘적법한 근로계약’ 이렇게 힘드나

## 한국어 강사 투쟁, 왜?

오진영 기자 clara0504@khu.ac.kr

지난달 23일부터 열흘 동안 국제교육원(국교원)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국교원으로 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에 반발했다. 강사들은 계약서를 쓰지 못한 채, 강의 외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호소문을 배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어 강사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강사 수당은 수업 시수 별로 주어지지만 학생이 다쳐 입퇴원 수속을 도우려 가거나, 경찰서에 있는 경우 밤늦게 달려가야 한다”며 “수업 이외의 예산관리, 학생유치 및 관리 등 모든 업무는 무급노동, 무료봉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유노동, 무임금’의 부당한 강제 노동인 행정 업무를 거부하면 수업 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명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당 노동이 이어지자 지난 10월, 한국어 강사들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한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수업 이외 강사에게 부여되는 ‘을으로서 의무’에 대해서 당연시하도록 하는 조항들만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계약기간 또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1개월로 한정지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강사 B씨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설명회는 없었고 계약서를 내밀고 수 일 이내에 사인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강사들은 이 계약서를 거부했고, 결국 현재는 무효화된 상태로 명문화된 계약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후 강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전체 강사의 98% 내외인 106명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하여 한국어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적법한 계약서 작성을 대학본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학교는 약반년 간 이렇다 할 대응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이들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입사한 소수의 강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강사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교원의 강사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부(대학원)가 아닌 학교의 부속기관에서 단기성의 어학코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강사로 대우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어 강사들의 주장이다.

강사 C씨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소득은 있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소득으로 3.3%의 소득세를 부과받는 학원 강사와 달리 현재 한

국어 강사들은 8.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강사 A씨는 “국교원의 특성상 교육원 내부는 사제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작년 부당한 계약서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암묵적인 무기 계약직으로 생각했다”며 “지금까지는 그나마 고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 감수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부당한 업무가 당연히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 또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고용 불안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국교원 측은 한국어 강사들의 주장을 ‘관례’라고 일축했다. 국교원 홍윤기 원장은 “과중한 업무는 교육의 범위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며, 국교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도왔지만 잡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어 강사들이 주장한 ‘갑질’ 역시 관례라는 입장을 내놴다. 주 20시간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암묵적으로 합의되었다는 주장이다.

우리학교 국교원은 국내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큰 규모다. 연간 1,200명의 유학생을 약 100여 명의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강사 A씨는 “더 작은 기관의 한국어 강사들은 이마저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희대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모범사례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국제교육원 소속 한국어 강사들이 부당한 처우와 불합리한 계약서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대자보 붙일 곳 없는 국제캠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국제】대자보는 대학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매체다. 대자보는 과거부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대자보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국제캠에는 대자보를 공식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 멀티미디어관(멀관) 및 단과대학이 대자보를 정식 게시물로 취급하지 않으며, 게시 기간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캠퍼스(서울캠)만 보더라도 상황이 다르다. 총학생회(총학)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3곳에 간격을 두고 게시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대자보가 여기에 수시로 걸린다. 심지어 단과대학 게시판에도 대자보가 붙어있다.

교양 수업이 이뤄지는 멀관은 학사와 관련된 게시물만 게시할 수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은 “멀관 게시판 이용시 반드시 게시 승인 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대자보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서 “다만 날인 없이도 2~3층만 한해 붙일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떼낸다”고 밝혔다.

과거 전공기초수업 조교 문제로 대자보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한 단체는 “행정실에서 승인 없이 붙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반응에 힘이 빠졌다”고 토로하며 “정해진 수량만큼은 짧은 기간이라도 게시를 보장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제캠에서 대자보를 정식 게시물로 인정하는 곳은 학생회관 총학 게시판과 학생지원센터 게시판뿐이다.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대자보 내용을 사전 검토한 뒤 승인하고 있다”며 “총학에 불리한 글이나 익명이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우리신문은 구성원의 대자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4일간 ‘국제캠퍼스 내 대자보 게시 시설과 구성원 인식의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제캠퍼스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6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70%(42명)가 종이 대자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슈가 발생하는 곳에 직접 게시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가 학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오늘날에도 종이 대자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

장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어 공식적인 대자보 게시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드러났다. 60명 중 48명(80%)이 ‘서울캠처럼 중앙게시판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캠 내에는 가시성 좋은 중앙게시판이 없어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서울캠 총학은 “게시 기간이 지나면 게시자 혹은 총학이 게시물을 수거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 과정이나 제재는 없으며 관행상 익명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 대학교에서는 ‘게시자 중심’으로 게시판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심의 과정도 없다. 게시 공간 또한 우리학교와는 비교가 되는 규모다.

서울대 자치도서관 위원장은 “관행상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한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 10군데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이 대자보를 보기 힘든 이유에 대해 43%(26명)이 ‘구성원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소범기(응용수학 2014) 씨는 “애초에 대자보가 게시된 모습을 접하기 어려우니 구성원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종이 대자보는 보통 유동 인구가 많은 위치에 부착된다. 사람들이 오고가며 지속적으로 이슈를 접할 수 있다.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 등 SNS와 같이 한 번 스쳐가는 매체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갖는 셈이다.

무엇보다 대자보는 학생들 사이에서만 여론 형성이 되는 인터넷 매체에 비해 교직원과 교수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우위를 점한다. 이인희(언론정보학) 교수는 “SNS는 정보 교류가 주목적인데 비사용자는 SNS에서 교류되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종이 대자보와 같은 올드 미디어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특히 여러 매체에 골고루 노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대자보’를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내붙이거나 걸어 두는 큰 글씨로 쓴 글’로 풀이한다. 대자보가 대학생들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체성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대학교라면 대자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주장이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개설 안내(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 1. 계절수업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9.05.13(월)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9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9.05.27(월) 17:00 까지 학번부여: 2019.05.31(금)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9.06.12 (수) 10:30 ~ 06.13(목) 17:00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ugang.khu.ac.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수업 수강신청' 링크 클릭
배강공고	2019.06.17(월) 12:00 (1차) 2019.06.20(목) 09:00 (2차)	본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등록금 납부기간	2019.06.17(월) 09:00 ~ 06.19(수)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정기간(배강과목 수강생)	2019.06.20(목) 09:00 ~ 17:00	서울·교무처 학사지원팀 방문 국제: 교무처 교직원 방문(2차 배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9.06.24(월) ~ 2019.07.15(월)	
상적입력일	2019.07.15(월) ~ 07.16(화)	
성적열람일	2019.07.15(월) ~ 07.16(화)	
성적정정일	2019.07.17(수) ~ 07.18(목)	

### 2. 수업안내 가.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5:45				

### 3. 수강신청

가.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1) 타대학 계절학기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제한범위에 포함됨
- 2) 국제교류처, 취업지원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활동은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나. 수강신청 방법

- 1) 정규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학점교류생 동일)
-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계절수업 수강신청 링크 클릭→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학점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인포2-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예납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 1) 입력사항: 학번 2019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배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9.06.21(금) 17:00	전액 환불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팀 국제캠퍼스: 교무처 교직원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9.06.24(월) ~ 06.28(금) 17:00	수강료의 2/3환불	방문--계절수업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본인명의 통장 사본 동봉)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9.07.01(월) ~ 07.03(수) 17:00	수강료 1/2환불	* 배강과목수강자 포함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팀 국제캠퍼스: 교무처 교직원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반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전공 15명 이상, 교양 20명 이상(소규모 강의 15명 이상)

나. 전공강좌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9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수업 수강신청 불가  
라.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수업 재수강신청 불가함(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불가(수강취소만 가능)  
바. 배강과목 수강신청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각 캠퍼스 담당부서(서울: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교무처 교직원)로 방문

사. 계절수업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F(또는 N)가 부여됨  
아. 계절수업 수강은 졸업 신청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한도, 한미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수업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수업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수업연한초과자는 휴학 중 계절수업 수강을 불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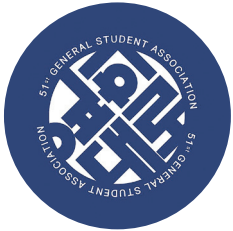
### 7. 문의처

가. 서울: 교무처 학사지원팀 / 02)961-0053 ~ 54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1층 113호  
나. 국제: 교무처 교직원 / 031)201-3047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본부W





제51대  
총학생회



이름

함께 이·부·다  
꿈을 이·부·다  
정회를 이·부·다

#. 지난해 11월, 2019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학생 대표자가 뽑혔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경희대로’ 선거운동본부(선본)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후보가 3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35.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이름’ 선본 전완주(일본어학 2015) 정후보와 이지은(산업경영공학 2015) 부후보가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52.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거 기간 ‘경희대로’는 크게 학원의 자주화를 통한 교육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름’은 건물 리모델링, 투명한 정보 공개, 교육·복지·환경 개선, 캠퍼스 이원화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9학년도 1학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양 캠퍼스 제51대 총학생회가 당선 이후 약 5개월의 임기 동안 학생의 지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약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소통에 주력...주요 공약 실현 미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지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 당시 경희대로 선본은 졸업이수 학점 축소 문제 대응, 공간부족 해소, 아름원과 한의/이과/간호 단과대학동 정식 사용승인 확보,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유도를 통한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의 학생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캠 졸업이수학점 축소 문제는 3학점 보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영대학, 무용대학, 음악대학, 정경대학, 호텔관광대학이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2018학번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을 기존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상위 규정인 학칙 개정 없이 단과대별 내규만을 고쳐 우선 시행한 점도 논란이 됐다. 당시 제50대 총학은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연서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교는 문제 제기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다섯 개 단과대 2018학번 학생들에게 3학점을 추가로 들을 수 있도록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회장은 “다전공생의 학점 부족, 수업 이수 축소 우려 등 파생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면서 “많은 학생들의 공분을 샀던 절차 문제만큼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의 정책 시행에 앞서 총학이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내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조별 과제 등의 모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 부족하

소통간담회,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 밑그림 마련에 성과  
공간부족 해소, 회칙 개정 등 구체적인 실현은 방학 이후 기약



김수혁(왼쪽) 회장과 김영우 부회장은 교육권 보장을 강조했다.

다는 불만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총학은 선거 당시 단과대별 구분을 넘은 공용 공간 확보로 공간부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단과대별 수요 및 공간부족 사례를 조사했고 현재는 건물별로 공용공간화 가능한 공간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과약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Info21 시스템에 공간 대여 신청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SPACE21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건물은 임시사용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대문구청은 2016년 대법원이 경희대로 부지 일부가 경희학원의 사유지이므로 구청이 부당이득금과 사용료를 지불

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기재한 해당 건물들의 건축인허가서 내용과 상충한다며 사용승인을 반려했다.

김 회장은 “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고 법인에도 면담 요청을 할 계획이다”라면서 “현재로서는 당장 해결을 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당사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여름방학 중이나 2학기 초부터 경희대로 갈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성원 단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총장 선출제 문제에 대해서는 김 회장은 “구성원 사이의 오해도 있고 법인과

본부 간의 논의 절차에 대해 구성원들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며 불명확한 소통을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구성원 의견을 모아달라는 이사장 말대로 진척을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런 논의를 위해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데 교수회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협상에 불응하는 형국이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선거운동 방식이나 법인 규정안의 독소조항 등 다뤄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투표반영비용을 둘러싼 갈등에 모조리 매몰돼 버린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밝혔다.

이밖에도 총학은 회칙 개정의 일환인 재정운영회칙 제정, 학내 차별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치규정 신설이 가시화 단계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그간 총학 업무 가운데 관련 규정이 없거나 사문화 돼 자의적이거나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면서 “회칙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총학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거 당시 인터뷰에서 경희대로 선본은 ‘사전예방’과 ‘학생자치 강화’를 주요 가치로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초 총학과 단과대별 학생회가 구성된 후 본부에 요청해 열린 소통간담회를 실천한 사례로 꼽았다. 소통간담회에는 학생 대표들과 총장 직무대행, 부총장, 각 행정 부서장 등이 참석해 학생회의 주요 공약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학교의 사업과 정책 시행 계획을 공유 받았다. 김 회장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곧 중간점검 차원의 간담회를 더 열고 나아가 앞으로도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복지 공약 원할...건축 관련 공약 불분명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혜준 기자 khj\_hyejun@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1대 이름 총학생회(총학)는 현재 임기의 중반을 달리고 있는 만큼 논의 중인 사항이 많았다. 총학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서명운동을 받고 낙후된 제2기숙사 뒤편 셋길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가로등 전구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생 이용 시설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취식실과 휴게실을 복원해 이르면 2학기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도서관 열람실에 노트북 사용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는 실현이 요원하다. 학교는 가능한 제2열람실의 우선 LAN 좌석과 AV실을 이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투명한 재정 공개를 위해 자치회비 감사단을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다소 수정돼 이행 중이다. 전 회장은 “소수의 구성원끼리 평가하는 것보다 다수의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 감사단을 구성하지 않았다”며 “내부 평가를 통해 2학기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과목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강좌 개설, 수강신청제도 개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결과 ‘음식과 문화: 글로벌&로컬 트렌드와 이슈’ 강좌가 개설됐다. 수강신청에 대해 전 회장은 “수강신청제도의 잦은 변화는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취소신청지연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생 복지 공약은 활발히 실천했다. 7개 건물에 유·무인 편의점이 입점하면서 학생

총여 존폐 총투표 실시, 유·무인 편의점 설치 성공  
건물 리모델링 착공 시기, 캠퍼스 이원화 논의 미지수



전완주(왼쪽) 회장과 이지은 부회장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학생 요구사항이 있었던 학생식당(학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학은 교내 학식 개선 협의 TF를 구성해 매달 학식을 이용하는 학생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3월 총투표를 통해 폐지가 결정된 총여학생회(총여) 대신 총학 산하 기구인 성평등인권위원회(성평등위)를 운영했다. 성평등위는 총여가 진행하던 시험기간 새벽 교양이 버스 운행, 여성용품 지원, 몰래 카메라 탐지 및 예방 등의 사업을 지속했다.

공간과 관련한 공약 이행은 아쉬웠다. 총학은 미래과학관 착공, 캠퍼스 노후 공간 리모델링, 공과대학(공대) 파빌리온 준공 등 공간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소동위원회에서 미래과학관 착공을 논의했지만 당

장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교외 재원 조달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어대학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도 기금이 확보돼야 한다. 단과대학 리모델링 계획은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하계 방학에도 진행되지 못할 예정이다. 전 회장은 “공약했던 리모델링 학생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단과대학에 전임한 상태다”며 “총학의 역할은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단과대학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직 삼을 뜨지 않은 공대 파빌리온 준공 역시 공대 행정실과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며 총학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이원화 문제는 답보 상태다. 전 회장은 “이원화 문제를 대평의

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총장선출제가 워낙 중요해 다른 안건은 자주 다루지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덧붙여 “그렇지만 캠퍼스 간 전과 기준 차이를 개선하는 것은 올해 안에 꼭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국제캠 학생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생활협동조합(생활) 유치를 위한 프로세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생활은 서울캠에 본부를 두고 국제캠에 지부를 두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소통 문제가 발생해 난항을 겪었다. 전 회장은 “유치에만 주력하기보다는 생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생청원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 역시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전 회장은 “학생들이 겪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확정된 정보만을 공유하다보니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장구 관리를 위해 내부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자를 증원한 만큼 2학기에는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축제를 꼽았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계획과 다르게 70주년 행사 규모가 간소화된 것이 문제였다. 일주일 전에 협업을 취소한 업체도 있었다. 전 회장은 “2학기에는 미리 준비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학기에는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데 집중했다”는 전 회장은 “2학기에는 축제와 e-sport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내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인 총장 후보추천규정에도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탐사보도

보장되지 않는 이동권...장애학생에겐 생존권 문제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윤용석(디지털컨텐츠학 2015) 씨는 국제캠퍼스(국제캠) 유일의 휠체어 이용 학생이다. 인도 환경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학교 곳곳에는 가파른 경사로, 흠이 패인 인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씨는 항상 일정보다 미리 움직이고, 길을 돌아가는 불편함을 겪었다. 우리신문은 윤 씨를 만나 다섯 해 동안 다녔던 정문에서부터 전공 수업을 듣는 예술디자인학관까지 이르는 등곳길을 되짚어보며 우리학교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학교 합격하자마자 가장 큰 고민은 예술디자인학관에 오르는 언덕이었어요.” 윤 씨는 우리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동 휠체어만 탔었다. 그러나 학교에 합격하고 그 기쁨을 누릴 새 없이 급하게 전동 휠체어를 맞춰야 했다. 국제캠 정문에서 예술디자인학관까지의 언덕을 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윤 씨는 “언덕을 오르는 게 익숙지 못했던 때 이동도우미와 같이 등고했어요”라고 회상했다. 가파른 언덕 탓에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경사로 인한 어려움은 다른 공간에서도 이어졌다. 인도 턱에 시멘트를 덧발라 경사로를 만들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기에는 경사가 급했다. 윤 씨는 “생명대학관 앞 경사로를 무리하게 지나다 휠체어가 굽히고, 균형을 잃어 몸이 심하게 흔들렸던 적도 있어요”라며 급격한 경사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다행히 윤 씨가 이를 학교 측에 건의하자 학교는 경사로를 완만하게 정비했다. 이처럼 휠체어 장애인 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경사로의 각도다. 학내는 물론 학교 건너편에 위치한 식당가는 이보다 심각한 상태다. 윤 씨는 “학교 외부에 있는 식당은 이동을 돕는 경사로가 없고, 오히려라도 경사가 가파른 것이 대부분이라 이용하기 어려워요”라고 말하며 학교 외부 식당을 찾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인도보다 차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보도블럭으로 만들어진 인도를 지날 때 휠체어 바퀴를 타고 진동이 그대로 전해져 몸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 이용자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① 인도 가장자리의 불법 주차차 차량으로 인해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모습이다. ② 경사가 급한 경사로에 시멘트를 덧발라 완만하게 정비한 모습이다. ③ 길을 새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깊게 파인 흠을 매워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 ④ 선승관 경사로를 전동 휠체어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인도 대부분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기준에 미달돼 휠체어를 타고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학교는 주로 아스팔트로 길이 설치돼 있지만, 외국어대학관에서 우정원에 이르는 아스팔트 길은 유난히 흠이 많이 패여 울퉁불퉁하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길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보면 조그마한 흠에 균형을 잃기 쉽다. 윤 씨는 “길을 새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깊게 파인 흠을 매워주는 것만으로 저에게 큰 도움이 돼요”라고 말했다. 덧붙여 “학교 측에 해당 길을 평평하게 정비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네요”라고 말했다.

만약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을 위해 도로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장애학생 통행로를 우선 보장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학교는 선승관을 지으면서 장애학생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변의 인도를 함께 공사했다. 윤 씨는 “인도가 사라져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아찔했죠”라며 당시의 공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 외에도 차도를 이용해야만 했던 순간은 또

있었다. 2015년 입학 당시 정문에는 장애학생 전용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씨는 계단으로 돼 있던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했다. 특히 우리학교 특성상 학내에 버스 차고지가 있어 정문부터 버스가 수없이 지나난다. 윤 씨는 “등교할 때는 물론이고, 신입생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할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인도 가장자리에 주차된 불법차량 역시 통행의 방해물이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사람 한명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차량 사이를 지나가기 어렵다보니 자주 돌아가요”라며 윤 씨는 체념한 것처럼 말했다.

건물을 들어가서도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윤 씨는 예술디자인학관에서 주로 전공 수업을 들지만 통행로는 모두 우회해야만 한다. 예술디자인학관을 이용할 때 경사로가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강의실을 찾아간다. 또 난방을 위해 문을 닫아둬야 하는 겨울마다 윤 씨는 난감해진다.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예술디자인학관의 문을 흔자 열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

다. “문이 닫혀있으면 다른 학생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해서 추운 날씨에 15분이나 기다린 적도 있어요” 윤 씨는 겨울마다 의례적으로 겪는 난관을 익숙하다는 듯이 말했다.

엘리베이터 부족도 윤 씨의 불편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제캠퍼스의 필수 교양 수업 대부분은 멀티미디어관에서 진행된다. 윤 씨도 새내기 시절 필수 교양을 수강하기 위해 멀티미디어관을 자주 찾았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다보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이 휠체어를 탄 윤 씨에게도 양보해주지 않아 이미 다른 층에서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보내야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관에서 연속적으로 강의가 있을 때는 더욱 고역이에요” 윤 씨는 매년 아슬아슬하게 강의실에 들어가곤 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단과대학 건물은 일절 이용하지 못한다. 윤 씨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와 스토리텔링 과목을 수강하고 싶었지만 외국어대학관에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없어 포기했어요”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무엇보다 윤 씨는 학교를 다닌 지 벌써

다섯 해가 지났지만 한 번도 축제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 축제가 매년 운동장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휠체어로 운동장 경사로를 내려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동장 안에서도 지면이 울퉁불퉁해 이동이 어렵다. 윤 씨는 “대운동장 경사로에는 유독 경사가 급해서 가볼 생각조차 없어요”라고 말했다. 노천극장은 비교적 접근성이 좋지만 이 또한 축제가 진행되면 두 갈래 길 중 평평한 길을 통째로 경사가 급한 길로만 진입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이 노천극장에 어렵게 도착하더라도 진입경사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객석 이 계단 쪽에 설치되면 원활한 관람이 어렵다.

윤 씨는 “서울캠퍼스 축제에 배리어프리존이 설치된 것처럼 앞으로 국제캠에도 장애학생 대상 복지사업이 마련돼 다양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보다 장애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학교의 한 학생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몫을 해내고 싶은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등록기간 : 6. 17.(월) ~ 7. 5.(금) 16:00까지

• 추가 등록기간 : 7. 8.(월) ~ 7. 12.(금) 16:00까지

※ 인원수 미달로 폐강된 강좌는 추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강의기간

정규 외국어강좌(6주) : 7. 8.(화) ~ 8. 16.(금)

강의시간표

Level Test

• 영어 : 7. 3.(수), 7. 4.(목) 17:30

• 중국어 : 7. 3.(수) 17:30

• 일본어 : 7. 4.(목) 17:30

• 테스트 후 난 배정 : 7. 5.(금) 오후 8시 이후 [www.iie.ac.kr](http://www.iie.ac.kr) 에서 확인

Sample Class

영어 : 7. 3.(수) 17:15 ※ 샘플강의는 강좌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19:2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후반 18:00~19:30 (화)					
	레벨	Ted Talk			Easy Book Club	Academic Writing Workshop	
	수강료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고급1 / 고급2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고급1 / 고급2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8:00~19:30 (월)	오후반 19:30~21:00 (화, 수)	오후반 18:00~19:30 (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 1	
	수강료	120,000원w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 Tel. 02) 961-0081~82 | <http://www.iie.ac.kr>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가. 접수 기간

■ 1차 : 6. 17.(월) ~ 6. 28. (금)

■ 2차 : 7. 8.(월) ~ 7. 19. (금)

나. 강의 기간

■ 1차 : 7. 1. (월) ~ 7. 25. (목) / 4주간

■ 2차 : 7. 22. (월) ~ 8. 14. (수) / 4주간

다. 프로그램 일정

	1차	2차
LEVEL TEST	6. 26. (수) 17:00	7. 17. (수) 17:00
입교식	7. 1. (월) 10:00	7. 22. (월) 10:00
Game Day	7. 11. (목)	8. 2. (금)
수료식	7. 25. (목) 13:00	8. 14. (수) 13:00
모집인원	한 반 정원 15명	
강의대상	LEAP	초 · 중급 영어 구사자
	LEAP Advanced	중 · 고급 영어 구사자
수강료	Half-Day Course (오전or오후) : 330,000원 (교재비 포함)	
	Full-Day Course (오전+오후) : 595,000원 (교재비 포함)	

※ 1, 2차 연속 수강 시 : 국제교육원 외국어강좌 장학 혜택 부여

라. 강의시간표

	LEAP	LEAP Advanced
10:00 ~ 11:20	6. 26. (수) 17:00	7. 17. (수) 17:00
11:30 ~ 12:50	7. 1. (월) 10:00	7. 22. (월) 10:00
14:00 ~ 15:20	7. 11. (목)	8. 2. (금)
15:30 ~ 16:50	7. 25. (목) 13:00	8. 14. (수) 13:00

※ 월 ~ 목(주4회) / 1일 6시간

※ 일정 및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영문 수료증 수여

■ Full-Day Course 수강 시, 성적, 출석 80% 이상일 경우, 영어 1 / 대학영어 면제 (서울캠퍼스 학생에만 해당)



# 초록이 아름다운 날들

## 교수칼럼

오택호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초록이 아름다운 날들이다. 눈부신 햇살과 파란 하늘, 흩어지듯 펼쳐진 하얀 구름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초여름을 돌아 살결에 감돈다. 겨울이 풀리고 맞이하는 산수유와 목련과 개나리의 3월도 좋았고, 진달래와 벚꽃과 철쭉이 앞 다투어 피던 4월도 좋았으며, 장미와 아카시아와 라일락향이 물씬 풍겨나는 5월도 좋았지만, 6월이 진정한 초록의 계절이다. ‘초록, 초록’ 하면 ‘초록들이’ 들고 일어나 저마다 ‘왜요, 왜요’ 혹은 ‘저요, 저요’라고 대답할 듯싶은 날들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초록의 날들에 어지럼증으로 고생 중이다. 6개월째다. 작년 12월말 겨울의 한복판에 용인으로 이사 온 지 2주 만에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과 난청이 생겨났다. 오른쪽 귀에 한여름의 매미 떼가 달라붙어 고성을 지르는 굉음을 감당해야 했다. 두 달 가까이 병원을 오가며 조속한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야니, 2주 정도의 스테로이드 약 복용과 4주 정도의 경미한 신경약 이후로 다른 처방은 없었다. 어지럼증센터에서 내린 최종 병명은 ‘미로염(迷路炎)’이다. 한자 이름처럼 나는 길을 잃고 소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로’라는 낭만적인 병명을 들으며 ‘사랑의 미로’를 떠올리다가 ‘미궁’을 설계한 그리스 신화의 다이달로스가 연상되기도 하고, ‘미로 같은 인생’을 떠올리다가 최근에 학생들과 함께 읽은 ‘인생이 안개’라고 피력하는 미셸 드 우나무도의 <안개>라는 소설이 떠오르고, 연이어 ‘안개’라는 말이 다시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무진의 명산물’인 안개 묘사 대목을 연상시키자, ‘미로염’은 이제 미로 같은 내 인생의 알리바이 같은 염증으로 느껴진다.

올해 50세가 된 나는 1990년 49세



에 작고한 평론가 김현이 <행복한 책 읽기>에서 진술한 것처럼 육체가 내 사유와 정신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래로 사유의 우월성과 인문적 가치의 고유성을 특별하게 생각해온 정신주의자였던 내가, ‘50세의 육체적 존재’가 된 나에게 무릎을 꿇은 셈이다. 이제 50년 인생의 변곡점 앞에서 나는 정신과 사유에 대한 육체의 승리를 인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으로 내 인생의 성패는 일단 이 어지럼증과의 싸움과 극복 여부에 달려 있는 듯싶다.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에는 조로증 환자인 아름이의 짧은 17년 생애가 초록처럼 아늑하고 슬프도록 처연하게 펼쳐진다.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안타깝고 아름다운 한아름의 인생’을 작가는 섬세하고 유려한 미문과 묘사로 입체화한다. 진술한 허구로 쌓아올린 진실의 내용이 더구나 멘터리적 사실에 근거한 실체적 진실보다 깊은 울림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는 80살의 외양을 갖춘 ‘17세의 어른아이 한아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청춘에 무지한 청춘, 건강에 무지한 건강”을 지닌 청소년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한다. 오디션에 도전하는 다른 청춘들의 실패를 부러워하던 ‘아픈 아름이’

의 진술에 기대어 피력하자면, 2019년 지금 스무 살의 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저돌적인 청춘이기를 기대한다.

2000년 9월 서툰한 살에 대학에서 ‘햇병아리 선생 노릇’의 강사가 되어 처음 20세 스무 살 청년들을 만났을 이래로 벌써 20년째 캠퍼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 나에게 대학생은 청춘의 상징이다. 청춘(靑春)은 푸른 봄이다. 여름에도 봄이고, 가을에도 봄이며, 겨울에도 봄이어서 늘봄이 청춘이다. 하지만 최근에 만난 청춘들의 모습은 생기롭다기보다는 허거져 보인다. 무엇인가 쫓기듯 허둥지둥, 허겁지겁 목적지만을 향해 켄 걸음을 놀리면서 자신들의 아름다운 날들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마치 흥성스러운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공연이 다 끝난 무대를 치우고 있는 듯한 허탈한 표정을 대면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것은 ‘꼰대인 나’의 위계화 된 시선에 불과하다. 나의 스무 살 때처럼 여전히 혹은 더 나은 방식으로 지금 스무 살들도 캠퍼스 안팎에서 주점과 동아리와 공연 등을 즐기며 세미나와 운동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과제의 늪에 허덕이며 높은 학점과 스펙

에 대한 간절함으로 1학기 생활을 관통하고 있다. 아직 어색하게 주춤듯 머뭇거리면서도 성실하게 제출한 학생들의 과제들을 마주하며 호흡한 진술한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들이 청춘의 고민을 풀고 털고 토로하며 이미 그 의미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 <글쓰기 1> 교과목이 <성찰과 표현>으로 개편되고, 첫 학기 수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마주했던 노란 빛깔의 병아리 색깔을 지닌 <나를 위한 글쓰기>교재는 이제 새로이 열은 옥빛의 성찰적 내면을 보여주는 하늘색강 <성찰과 표현> 교재로 바뀌었다.

경희대생들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재발견함으로써 내적 견고성을 함양하기 위해 투명한 성찰의 시간을 도와준 텍스트가 8년 만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셈이다. 2019년의 스무 살들과 함께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청춘으로 호흡하기 위해 마련된 ‘나의 장소, 말한마디, 음식’ 등을 통한 관계의 재발견이 더 나은 성장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상징으로서의 청춘이 아니라 현실로서의 청춘을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절실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초록의 계절에.

## 참여마당

조운주

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9



## 당신은 패스트패션에 숨은 폭력과 눈물을 아는가?

누구나 쉽게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엔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영향이 크다. 패스트패션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유니클로, H&M, ZARA 같은 상표를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통상 이런 브랜드를 ‘SPA브랜드’라고 칭한다. 이 브랜드들은 상품을 직접 제조할 뿐만 아니라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제조 원가를 낮추고, 유통 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이 가능하다.

패스트패션은 SPA브랜드를 통해 일어나며, 최신 디자인,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션을 뜻한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패스트패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계시민 강좌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학교 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약 62.7%의 학생들은 패스트패션에 대해 알지 못하며, 전체의 57.6%의 학생들은 패스트패션에 문제점이 없다고 여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약 절반은 문제 자체를 몰라, 자신의 소비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무지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패스트패션 산업의 숨겨진 진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패스트패션은 크게 환경적 측면과 노동적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패스트패션 브랜드가 옷값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 섬유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합성 섬유는 토양, 해양에도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며, 이는 인간에게 되돌아와 악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패스트패션의 소비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자신과 환경을 위해 현명한 옷 소비를 할 것인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이란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그 가격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착취해 만든 희생의 결과라면 마냥 저가의 소비를 즐겨워할 수 있는가? 2016년 이스탄불 ZARA 매장에서 히든 태그가 발견되었다. 이 태그엔 불합리한 착취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노동자의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억울함을 고발한 노동자들은 옷을 만드는 3개월간 보수도 없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허름한 공장에서 일을 했다. 인건비 절감도 분명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인권보다 이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 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요즘 패스트패션의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슬로패션이 떠오른다. 슬로패션이란, 트렌드를 쫓지 않고 오랜 기간 입을 수 있는 옷을 칭한다. 이미 H&M 같은 몇몇 SPA브랜드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 슬로패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종교 의류나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옷을 제작하며, 환경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옷을 구매할 때 가격이 싼 이유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며,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이유로 SPA브랜드에서 쇼핑을 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싼 가격이 결국 자연을 위협하고 누군가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패스트패션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슬로패션을 실천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을 더한다면 더 나은 자연, 노동 환경을 위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2019학년도하계방학전략적공기업·공공기관진출대비프로그램  
"SPEC" (StrategicPublicEnterprisesConsulting)참가자모집안내

1.모집대상

2019년하반기또는2020년상반기각종공기업·공공기관취업을목표하는학생  
[별도의참가비없음,졸업생신청가능하나수강인원의최대20%로제한]

2.교육기간

2019.6.28(금)~2019.8.6(목),10:00~12:00(매주화·목요일,총10회)  
[교육기간중료후,희망지역한해스터디팀명칭신청가능(시·시주소,면접지도)]

3.신청기간

2019.6.14(금)10:00~2019.6.21(금)17:00까지[신청선40명모집]

4.신청방법

네이버폼접속후신청(신청URL:http://naver.me/Gsen37Kb)  
※자유양식의이력서및자기소개서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미제출시신청불가)

5.담당

미래인재센터박인경교수(010-9039-8961,duke36@daum.net)

6.세부교육일정및커리큘럼(회차오리엔테이션불참시프로그램참여불가)

구분	일자	시간	교육내용	강의
1회	6.28(금)	10:00~12:00	OT·출석확인·조판식·과제안내·프로그램소개	박인경교수
2회	7.2(화)	10:00~12:00	NCS채용의이해·직무역량	박인경교수
3회	7.4(목)	10:00~12:00	NCS채용과정스토리텔링·임사지원서와자소서	박인경교수
4회	7.9(화)	10:00~12:00	NCS채용과정스토리텔링·직무사업과자소서	박인경교수
5회	7.11(목)	10:00~13:00	전문가초청특강(1차)-NCS편	이시한강사
7.15(월)~7.19(금)	14:00~18:00		NCS직업기초능력평가문제풀이집중교육	해커스·Job
6회	7.23(화)	10:00~12:00	블라인드채용의이해·자소서와면접Part1	박인경교수
7회	7.25(목)	10:00~12:00	블라인드채용의이해·자소서와면접Part2	박인경교수
8회	7.30(화)	10:00~12:00	면접의실제-Part1	박인경교수
9회	8.1(목)	10:00~12:00	면접의실제-Part2	박인경교수
10회	8.6(화)	13:00~16:00	전문가초청특강(2차)-공기업과공기관채용편	이상훈강사

7.참고사항

1)전문가초청특강(1~2차)의경우공개특강의형태로,본수업에참여하지않는학생들도청강가능  
• 1차 : 이시한강정이시한대표(직무작성강사)수강자검출제유연  
• 2차 : 한국HR연구소이상훈대표(현종기업면접관)  
2)NCS직업기초능력평가문제풀이집중교육의경우 '해커스' 주관하에진행되는교육으로별도수강신청필요  
\*관련내용별도공지예정이나참여를희망하는학생들은필히신청바람(수강료:3만원)

8.수강학생의무사항및과제

1)하계방학중월1회이상개별상담신청및실시(상담시간-종합정보시스템 '상담' 탭참조)  
2)개별과제·경제신문,공기업출제시작업용공기업사자및분석보고서제출(세부사항은1회차오리엔테이션시안내)  
3)희망공기업NCS자소서작성·자참하여교육참여1부지침,1부제출  
4)교육기간중공기업·사기업실제채용지원수시)

9.프로그램미수료대상(미수료자의경우패널티부여패널티의경우예치금제도폐지관련공지사항참조요망)

• 2회이상결석(불참)인원(면접장석등과같은사회진출관련불참은예외)  
• 지각2회~결석1회/과제미제출2회이상-결석1회로간주함

10.문의:미래인재센터서울캠퍼스(청운관1층학생생활지원존,02-961-0167)

KHU 미래혁신원미래인재센터(서울C)

2019학년도 하계방학 JEC [취업교육컨설팅]  
4기 참가자 모집안내

1. 모집 대상

▶ 1순위 :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2020년 8월 졸업 예정자·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3~4학년 학생)  
▶ 2순위 :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자  
▶ 3순위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

2. 모집 인원

선착순 60명 (단, 선발자 중 1순위는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3. 교육 일정

2019. 7. 3(수) ~ 2019. 8. 29(목) [약 2개월간, 매주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임]

4. 장소

교내 지정 강의실 (추후 공지)

5. 신청 방법

네이버 폼 접속 후 신청 URL : http://naver.me/GfPCQCE7  
※ 네이버 아이디 접속 후에만 응답 가능하므로 신청 전 로그인 필수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시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반드시 업로드하기 바람 (미 업로드 시 신청 불인정)  
※ JSC (취업성공컨설팅) 19기와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신청 건 모두 불인정)

6. 신청 기간

2019. 6. 11(화) 10:00 ~ 2019. 6. 21(금) 17:00  
※ 10:00 기준 신청 순으로 선발하며, 신청 기간 시작 전 / 마감 후 접수 건의 경우 무효 처리함  
※ 신청 기간 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사례 : 2019 상반기 OIP 6기 모집의 경우 1분 여 만에 마감됨)

7. 참여자 특징

▶ 특전 1 -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hrbrown) 회원가입 승인(비공개 사이트임)  
본 카페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자기소개서 약 5,200개와 기업별 면접후기 약4,750개 보유  
▶ 특전 2 - 미래인재센터에서 진행하는 교내 추천채용 서류전형 시 우대

8. 담당 교수

홍상기 대표이사(주식회사 HR브라운)

9. 1일 차 교육(OT)

신청자는 필히 참석 (가장 중요한 교육임 - 첫 수업 불참 시 교육 참여 불가)

10. 프로그램 문의

미래인재센터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02-961-0167~8)

11. 비교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생 신청 가능 (단, 오전/오후와 관계없이 3학점 이하 수강생에 한함)

《필독》 참가비 (예치금) 관련 공지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미래인재센터 장기(4주 이상) 진행 비교과 프로그램의 예치금 제도 폐지  
- 단, 특별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적용 ('특별한 사유'란 사회적 통념 상 수용 가능하며, 서류 등의 객관적 형태로 증빙이 가능한 사유를 의미함)  
- '수료' 기준은 각 프로그램 별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기간부터 프로그램 '종료' 기간 내 사회진출 (취업/인턴/진학 등)에 성공했거나, 85% 이상 출석을 하였을 경우를 '수료'로 봄  
- 패널티 적용 학생의 경우 미래인재센터 타 프로그램에 참여 불가하며 교내 추천채용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 (채용설명회와 같은 각종 채용행사 또는 명사특강·Job Festival과 같은 단발성 행사는 참여 가능)  
- 프로그램 신청자의 1일차 교육(OT) 참여는 의무 사항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OT 불참 시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없음. 이 때, '경고 1회 부여 (경고 2회 = 패널티 적용)  
- 교육 신청자는 프로그램의 1일 차 교육 (오리엔테이션) 진행일자 준 익일 17:00까지 교육 포기 신청 가능

2019년 하반기 대기업/외국계기업/중견기업 취업성공 목표  
2019학년도 JSC [취업성공컨설팅] 19기 참가자 모집안내

1. 모집 대상

▶ 1순위 : 2019년 8월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2019년 하반기 공채로 12월 말까지 입사를 목표로 하는 자  
▶ 2순위 : 2018년 8월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자 중 위 내용을 목표로 하는 자  
▶ 3순위 : 2018년 8월 이전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위 내용을 목표로 하는 자

2. 모집 인원

선착순 60명 (단, 선발자 중 1순위는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3. 교육 일정

2019. 7. 1(월) ~ 2019. 10. 31(목) [약 4개월 간, 매주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임]

4. 장소

교내 지정 강의실 (추후 공지)

5. 신청 방법

네이버 폼 접속 후 신청 URL : http://naver.me/G35YNyCm  
※ 네이버 아이디 접속 후에만 응답 가능하므로 신청 전 로그인 필수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시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반드시 업로드하기 바람 (미 업로드 시 신청 불인정)  
※ JEC (취업성공컨설팅) 4기과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신청 건 모두 불인정)

6. 신청 기간

2019. 6. 11(화) 10:00 ~ 2019. 6. 14(금) 17:00  
※ 10:00 기준 신청 순으로 선발하며, 신청 기간 시작 전 / 마감 후 접수 건의 경우 무효 처리함  
※ 신청 기간 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사례: OIP 6기 모집의 경우 1분 여 만에 마감됨)

7. 참여자 특징

▶ 특전 1 -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hrbrown) 회원가입 승인(비공개 사이트임)  
본 카페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자기소개서 약 5,200개와 기업별 면접후기 약4,750개 보유  
▶ 특전 2 - 미래인재센터에서 진행하는 교내 추천채용 서류전형 시 우대

8. 담당 교수

홍상기 대표이사(주식회사 HR브라운)

9. 1일 차 교육(OT)

신청자는 필히 참석 (가장 중요한 교육임 - 첫 수업 불참 시 교육 참여 불가)

10. 프로그램 문의

미래인재센터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02-961-0167~8)

11. 비교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생 신청 가능 (단, 오전/오후와 관계없이 3학점 이하 수강생에 한함)

《필독》 참가비 (예치금) 관련 공지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미래인재센터 장기(4주 이상) 진행 비교과 프로그램의 예치금 제도 폐지  
- 단, 특별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적용 ('특별한 사유'란 사회적 통념 상 수용 가능하며, 서류 등의 객관적 형태로 증빙이 가능한 사유를 의미함)  
- '수료' 기준은 각 프로그램 별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기간부터 프로그램 '종료' 기간 내 사회진출 (취업/인턴/진학 등)에 성공했거나, 85% 이상 출석을 하였을 경우를 '수료'로 봄  
- 패널티 적용 학생의 경우 미래인재센터 타 프로그램에 참여 불가하며 교내 추천채용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 (채용설명회와 같은 각종 채용행사 또는 명사특강·Job Festival과 같은 단발성 행사는 참여 가능)  
- 프로그램 신청자의 1일차 교육(OT) 참여는 의무 사항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OT 불참 시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없음. 이 때, '경고 1회 부여 (경고 2회 = 패널티 적용)  
- 교육 신청자는 프로그램의 1일 차 교육 (오리엔테이션) 진행일자 기준 익일 17:00까지 교육 포기 신청 가능

KHU 미래혁신원미래인재센터(서울C)



